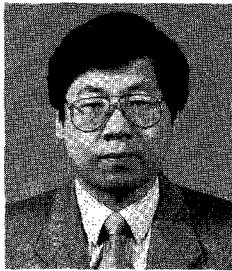


사람의 독감과 가금인플루엔자



모 인 필
수의과학연구소 계역과
수의병리학박사

1. 머리말

요즘 신문지상에 사람의 독감에 대하여 많은 기사가 실리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독감경보를 발령하였고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방역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기사에 실린 내용을 간추려보면, 첫째, 독감의 원인은 인플루엔자 A형, 둘째, 병원성에 강하여 사람의 생명도 앓을 수 있음, 셋째, 주기적으로 대유행을 함, 넷째, 과거 1918년도 1차 세계대전 때에는 전세계적으로 약 2,000만 명이 사망하였음, 다

섯째, 최근의 대유행은 1968년 이었고 이제 대유행의 시기가 왔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가금인플루엔자와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독감 즉 사람의 인플루엔자와 가금인플루엔자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가금인플루엔자의 이해를 돕고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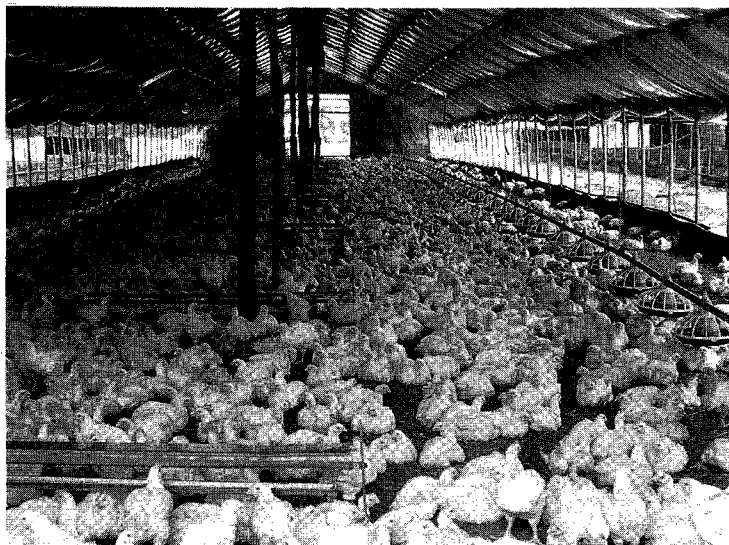
2. 본론

사람의 인플루엔자와 가금인플루엔자는 같은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이다. 따라서 바이러스의 특성, 발병양식들이 거의 유사하다. 유사한 점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병원성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사람의 독감도 매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지만 감염된 사람들이 항상 사망을 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독감의 경과를 거치면 바로 회복을 한다. 닭도 마찬가지이다. 가금인플루엔자는 병원성이 매우 다양하여 호흡기 증상만 있는 경우부터 거의 100% 폐사에 이르는 경우까지 병원성의 범위가 매우 넓다.

둘째는 같은 바이러스라도 다양한 종류(형)가 있다는 것이다. 지구상에 가장 다양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종류가 있는 것이 바로 조류이다. 100종류가 넘는다. 조류에 비하여 종류가 많지 않은 사람의 인플루엔자에 있어서도 다양하다고 하여 백신개발이 쉽지 않고, 백신이 개발되어도 효과가 인플루엔자 백신의 개발은 아직까지는 요원한 실정이다.

셋째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쉽게 변이를 한다는 점이다. 작년에는 병원성이 약하던 사람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올해는 극성을 부



리고 있다. 심지어 목숨도 위태하다고 한다. 같은 바이러스라도 이렇듯 병원성이 변할 수 있다. 닭은 앞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종류가 사람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더욱더 쉽게 변할 수 있다. 그래서, 1996년 경기도 화성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였을 때 방역당국에서 살처분 정책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넷째는 사람도 몸이 약하거나 과로하였을 때 독감에 잘 걸린다. 그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 때문이다. 닭도 마찬가지로 사양환경이 열악하거나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 쉽게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된다. 작년에 발생되었던 계군들이 모두 종계에서 특히 나이가 많은 계군에서 먼저 발생을 하고 발생농장을 대부분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것이 이러한 점을 증명하여 준다.

다섯째는 차단방역을 하면 막을 수 있는 전염병이다. 사람도 독감이 유행할 때는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집으로 귀가하자마자 손발을 씻으라고 한다. 닭도

마찬가지이다. 가능한 외부사람, 차량들의 농장출입을 엄격히 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주어야 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매우 약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외부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있지를 못한다. 차단과 소독을 잘하면 반드시 막을 수 있는 전염병이다.

여섯째 계절적인 발생특성이다. 사람들은 주로 환절기에 감기에 걸린다. '오뉴월에는 개도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닭도

마찬가지로 환절기에 가금인플루엔자가 주로 극성을 부린다. 한여름에는 계군의 상태가 극도로 열악하지 않는 이상 발병이 많지 않다. 그래서, 작년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된 관계로 이번 봄 환절기를 우리는 매우 비상한 관심으로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한다.

여섯째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람도 독감에 걸리면 죽지 않는 이상 일단 병의 경과가 끝나면 평사시의 상태로 되 돌아온다. 일반적인 성인병, 암 등과 달리 평생을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닭도 마찬가지이다. 일단 폐사가 되지 않으면 남아있는 닭들은 정상적으로 회복을 하여 산란, 육성 모두 좋아진다. 오히려 약했던 닭들이 모두 폐사가 되었기 때문에 산란을 등은 더욱더 좋아질 수도 있다.

여러 양계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람의 인플루엔자와 닭의 인플루엔자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여 보았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는 궁금하지만 개념정립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앞에서는 서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고 하였지만 여러분들도 이해 하듯이 사실 거의 똑같다. 사람의 독감을 생각 하면서 닭의 인플루엔자를 여러분의 농장으로 부터 차단하고 닭의 인플루엔자의 방역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족을 독감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매번 가금인플루엔자를 이야기 할 때마다 차단방역에 대하여 언급을 한다. 차단방역은 가금인플루엔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닭은 모든 전염성질병으로부터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귀찮고 성가시고 또한 너무 많이 들어 봤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로 여기에서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끝내고자 한다. 여기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평소에 자신이 과연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한달만 기록을 하여보자. 여러분의 농장에 왜 그렇게 많은 질병이 있는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외부인의 출입통제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농장에 허락 없이 출입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특히, 닭과 관계 있는 사람의 출입은 사전에 반드시 허락을 말도록 하고 출입을 할 때는 농장 자체내에서 준비한 옷을 입히도록 하여야 한다. 출입자가 준비한 옷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백신접종팀들이 자신들이 준비한 옷을 갈아입고 와서 백신접종을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세탁이 잘되어 있겠지만 양계장의 수많은 닭을 생각하면 도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준비한 확실한 옷을

입도록 하여야 한다. 요즈음은 1회용 옷도 많이 있다.

두번째 차량의 통제이다. 외부에서 여러 군데 들렀던 차량이 여러분의 농장에 들어왔을 때에는 외부의 질병이 같이 왔다고 생각하면 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감염된 닭의 똥 1그램은 약 10만수의 다른 닭을 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차량의 바퀴에 얼마만큼의 닭똥이 묻어있는가? 현재의 여건상 사료, 닭차의 출입통제가 불가능하다면 가장 최선의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반드시 첫 번째 순위로 넣어두기 바란다. 계사구조를 현대식으로 바꿀때 경제적 이득과 질병발생시 경제적 손해를 반드시 비교하여 보아야 한다. 계사의 현대화는 차단방역이 기본으로 되어있다는 가정 하에 성립되는 것이다.

내부에서의 차단방역도 필요하다. 작년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던 농장중 현대적 계사에서 발생을 한적이 있다. 같은 농장의 구계사에서 발생을 한 후 신계사로 전파가 된 것이다. 계사내 출입을 할 때 신발 한번 갈아 신고



소독조에 신발 한번 담는 것 이것 하나만 정확히 실행을 하여도 많은 질병을 차단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힘든 요구사항이지만, 여러분의 농장에 질병이 발생하였을 시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방역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해 농장은 가슴아픈 일이지만 전체 양계산업을 위하여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한다. 본인은 감추면서 다른 농장이 비밀로 하여 내 닭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한 경우는 없는지? 서로 협력하여야만 국토가 좁은 우리 나라에서 양계산업을 유지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뉴캐슬 병에 대한 보상도 축주의 신고나 협조성에 의하여 차등 지급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내 질병을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내 양계장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보험 한 구좌 들은 것이라 생각을 해야한다. 반드시 보답이 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국내에서 어느 한 양계장도 뉴캐슬 등의 전염성 질병에 피해를 입지 않은 농장이 있는가?

3. 맺음말

외국의 냉장, 냉동 닭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때에 생산성향상을 통한 생산비의 절감은 절대적인 것이다. 이러한 생산비의 절감은 질병의 사전차단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질병이 만연되어있는 상황에서 축산물위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한갓 공연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여러 양계인들의 현명하신 지혜가 모여 양계부국으로서의 기틀이 잡혔으면 하는 마음으로 양계인의 한사람으로써 양계산업의 풍요한 앞날을 기원한다. 양계

우량중추 선택이 농장성공의 열쇠

- 고객의 신뢰속에 우량중추만을 생산해온 무지개농장이
- 초현대식 시설의 무창 자동화 중추계사를 신축,
- 국내 중추업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무 지 개 농 장

주 소 :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미장리 170
TEL : (0334) 72-3322

- * 완전주문생산제 실시
- * 완벽한 방역프로그램
- * 철저한 올인 올아웃
- * 완벽한 무창 중추 농장